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미약하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교사들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사로서 합당히 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으로 점점더 끌려가는 그 아이들을 능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이 세례 요한의 공과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례요한의 삶을 본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만 의지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15.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번 공과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어떤 삶과 그 삶속에 우리가 본받아야될 교훈을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무엇을 외쳤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해서 공과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벌써 태어나기 전에 그의 태어남이 천사에 의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예고가 여기 성경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는데 인제 아버지는 스가랴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난 것은 바로 기적으로서 태어난것입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날 것이 벌써 예언되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과 청렴한 생활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전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보다 더 큰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있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이 엘리야는 엘리야가 직접 살아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례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할 일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미리 예언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찐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 세례 요한의 삶을 찾아보면은 특징이 한 4가지로, 5가지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제되고 헌신하는 삶이였다.

누가 복음 1장 15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로 잘못읽으시다가 다시)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바로 청년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는 더 어떤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삶을 포기하고 빈 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정말 그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엔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가운데 있을때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이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리고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했던 바로 그힘도 바로 절제되고 헌신하는 삶 그 속에서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세례요한이 다른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더라면은

그는 예수님을 증거할수 없었을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참으로 바로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주셨고 그는 또한 그 성령의 증거하심을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됨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이 세상에 빠지게 되고 또 그들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못살게 되고

정말 죄를멀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할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차야 되는데 그 세상의 욕심과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정말 이 세례 요한 처럼 절제하는 그런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사의 직무를 잘 못하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과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먹고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선 안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빠져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더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더 인도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될 선생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입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 그런걸 고민한다면 정말 주님앞에 합당하지 못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ㅇ거할때에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신, 그 신은 그때 당시에 샌들 이죠 그 샌들에 끈을 풀기 조차도 감당 못할 그런 천한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자신앞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죠.

우리 역시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잽니까

정말 먼지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도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오로지 얘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들매는 종이 하는 일이였는데 그중에서도 이 신들매를 푸는일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였고

그리고 그걸 풀고 발을 씻겨주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니까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생각하고 그걸 증거했습니다

우리 역시 참으로 겸손한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에게는 겸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이 공과를 준비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성도들 보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또 많이 가질수가 있습닏.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뿐이지 우리가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 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 이시라는거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요, 아이들을 그 공과를 준비하면서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갔을때 그분의 사랑도 내 마음에 더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때에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며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한발작도 땔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음은 낮춰지고 그리고 주님을 높일수 있게 됩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을 증거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려면은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겸손해야지 하는 생각으로는 안됩니다.

겸손할려면 교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말씀에 항상 귀를 귀울여야 됩ㄴ다

결국 말씀이 내 마음을 낮춰주는 것인데, 말씀을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했을 때 결국 우리 마음을 마귀가 틈타게 되고 결국 우리 마음은 , 우리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결국은 우리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사들 사이에서도요 그 교제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않을까.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낄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정말 화평한 마음 어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망하고 그들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정말 하루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때 아이들은 얼마나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많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세례요한은 자라면서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1번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은 절제되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바로 구별된 그런 삶이였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편의와 즐거움이 없는 그런 곳이였고, 이 번성하고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곳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그 아들로서 태어나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했습니다, 정말 구별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눈에는 그 예룻사렘에서의 삶이 훨씬 좋아보일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구별된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우리역시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은 우리눈에보이는 그것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그 세상에서의 화려한 삶 그것이 부러워 보이고 지금 그렇지 못한 나를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비관 할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받ㄴ지 않았으면좋았을 껄 그런 위험한 말을 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선는 우리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집을 떠나가면은 참 잠자리가 안편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힘있게 전할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힘이 없을 까요 내가 왜 아이들에게 가르칠때 왜 지혜가 잘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는 세상을 부러워 하는 마음이 없는지 .

우리 선생님들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제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것이 내 마음에 정말 소중하고 그런것이 와닿았을때 우리는 세상것을 버릴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형제자매들 가운데 정말 느껴지는 그 사랑 정말 내 마음에 너무

나 큰 기쁨을 줍니다

이 세상에 그 기쁨과 비교할 것이 있을 까요 ?

정말 돈으로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그 기쁨을 살수 있을 까요 ?

주님안에서의 만족을 세상에서 느낄수 있을까요

잠시간에는, 잠시동안은 먼가 줄수 있을 것 같이 , 또 그런것을 느낄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마냥 영원토록 줄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것은 잠시간에 그 만족 뒤에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쓰라린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정말 주님안에 있는 것이 정말 진짜 보화요 , 우리에게 정말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때 우리가 그런 확신가운데 있을때 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는 힘있게 말씀을 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확신있게 전해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고 그안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빈들에 살면서도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엇더라면 그 삶을 분명히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

그리고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힘있는 외침 그건ㅇ 있을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보시죠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당시에 사회적인 세력가였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고 정말 담대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어찌보면 정말 내가 어리니까 내가 어떠니깐 용기를잃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건 이래서 안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낫게 보이면은 참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회개할것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요소 때문에 정말 정작 전해야될 말씀을 전하지 못한때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것을 초월해서 정말 영혼을 보는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커질때는 영혼ㅇㄹ 바라볼수 없고 정말 저희가 말씀을 전할 용기가 안생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선 안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선 안됩니다.

항상이 영안이 밝아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불쌍함을 우리는 항상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영혼의 죽어있는 상태, 그들의 어떤 내면을 볼수 있어야 됩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때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때도요 정말 육신으로 보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외모를봐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정말 외모가 좋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외모가 정말 깔끔하고 이뻐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아이들이 더 귀엽고 가깝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그래선 안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조차 정말 그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물론 외형적으로 드러나면 큰일나죠.

마음에서 조차 그런 차별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할수 있도록

어느 누구나 그 어떤 아이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수 있고 사랑할수 있도록

그 어떤 아이도 우리가 사랑할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때 우린 아이들에게 진정 주님의 말슴을 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모를 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봤을때 그 죽어있는 영혼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때 우리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훌륭한 교사가 누굴까요

저는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없는 마음을 아이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사랑할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은 누가 모라지 않아도 준비하고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될 내용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 ,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실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할수 없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제되고 겸손하고 구별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온전히 그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의 존재 목적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할때도요, 어떤 분이 구원을 잘 받느냐

마음받이 잘 갈린 분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습니다 .

얼마나 그 마음받이 잘 갈렸느냐

우리가 전도할때도요, 정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잘 닦아놨을때 그 사람은 구원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였습니다, 주님이오신다

우리 또한 마찬가집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겟습니다

10장 37절입니다.

37.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

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힘이 빠질 리가 있을까요

그 소망이 약하여질 이유가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 우리 마음속에 이 세가지가 항상 있다면은 우리가 힘이 빠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약하여 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 역시 살아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집회, 잘 참석하고, 교제 잘 참석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정말 주님의 말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확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됩니다.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되있고 결국에는 교사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난 정말이 교사에합당치 않을 사람이다 그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참 저도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물론 부족한 것을 아는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회의적으로 그런생각을 할때가 있습니다 .

정말 우리는 정신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그런말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잊지 맙시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정말 확신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때 우리는 역시 세례 요한의 삶을 같이 똑같은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라 .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이제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날이 가까웠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람들에게 힘있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특히 아직도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구원 받지 못한 아이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깨닫도록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자복한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지적자(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음?) 를 책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들의 죄를 책망했는데, 그 세례요한 자체가 바로 죄에 빠졌더라면은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개하도록 만들

었을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을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을때 자동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그들을 회개케 합니다 .

우리가 죄에 빠져선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방법으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회개만이 살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주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요한 자신보다 월등한 분이고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심판자이시여,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침을 우리가 하기 g위해서는 역시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외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교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의 가장 큰 장소는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다가 힘있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회개케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시간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깨우칠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구원해주신 주님의 사랑 저희들 마음속에 식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막중한 것임을 날마다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 함으로 이 소명을 한사람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주님으로 인도할 것인지 주님 더욱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삶처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또한 세례 요한의 삶인줄 압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절제되고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며 또 담대하게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는 삶속에서 정말 살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그리함으로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또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회개케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마찬가지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때에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확실하게 심길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있게 외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